

# 순천시, 제7회 동물영화제서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 개최

## 반려동물 수영대회 등 이색볼거리 풍성



순천시는 제7회 동물영화제 기간 동안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 행사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17:00부터 21:00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한다.

'반려동물 문화한마당'은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의 부대행사로 동물보호와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

여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 극복을 위해 순천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 반려동물 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24일에는 반려견 수영대회를 개최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

정이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반려견은 견종이나 크기에 제한이 없으며 신장순 40마리에 한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신청을 하거나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에 대해 알 수 있는 퀴즈와 신발대회, 유기동물 홍보부스 운영, 무료 동물건강 상담, 문제권 행동교정 상담, 스텝 짝꿍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운영, 대형 슬로건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를 통해 동물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여름의 더위를 시켜줄 세계동물영화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순천문화예술회관, 문화의거리, 국가정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 녹색어머니회와 교통안전 방안 논의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시청 인근 카페에서 관내 11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11명과 사랑방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안전 지도에 애쓰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했

다. 먼저 참석자들은 권 시장에게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초등학생 교통안전 골든벨 개최와 교통안전 캠페인 물품 지원 등 학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우천 대비 안전우산 비치 등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건의 사항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곡성멜론이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위한 공식 시험대에 올랐다.

곡성군과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멜론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

시다.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여서는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에 도입됐으며, 현재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등 100여 개의 품목이 지리적 표시를 인정 받고 있다.

곡성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곡성멜론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시킬 것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와 멜론농가

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곡성멜론만의 품질 특성, 생산 유래, 곡성군 지리적 특성과 곡성멜론의 연관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엔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게 됐다.

신청을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기구인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곡성=김영휘 기자

## 고흥군, 농수산물 해외서 잇따라 수출 협약 체결

유럽 190만 달러, 홍콩·말레이시아 500만 달러 협약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최근 체코와 이탈리아에서 유자상품 19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4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달러, 16일에는 홍콩에서 400만 달러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10여 일 동안 총 690만 달러(83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고흥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었는데, 고흥군수가 직접 해외 수출현장에 나가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고흥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써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체코에서 크로스 카페(CROSS CAFE) 등 2개사와 80만 달러, 이탈리아에서 에세필 SRL(Essefil SRL)사 등 2개사와 11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케이엠티(KMT)사와 100만 달러, 홍콩에서 영트레이드(Young Trade)를 비롯한 3개사와 400만 달러 등 총 690만 달러(83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송 군수는 홍콩의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시우풍 그룹의 '시우인 품' 회장을 직접 만나 고흥 농수산물 수입을 요청하였고, '시우인 품' 회장은 금년 10월에 고흥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를하기로 하였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고흥의 8개 수출업체와 함께 15일부터 4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홍콩 식품박람회에도 총 21개국에서 1,403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종 식품을 전시 판매하여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들에게는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고흥=한윤식 기자

## 광양시, POSCO·YGPA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총력

광양시가 최근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룰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장은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 더드림스마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항만공사의 지역 벤처기업 업무공간 서비스 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양분야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양시 벤처기업센터는 기업 육성 지원, 벤처 플랫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포스코, 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동반성장혁신 허브 활동을 펼쳐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9월 광양지역 24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 중 '제4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2월 중으로 동반성장혁신허브 활동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윤성 제철항만팀장은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기업 간 소통채널을 일원화하고 창업 아카데미, 기업 상생문화를 확산해 청년 창업 마인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광양 벤처 밸리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보성군, 올해 첫 친환경 올벼쌀 수확



추석명절을 앞두고 19일 청정지역 보성군은 웅치면 안전군 씨 논(2.4ha)에서 첫 올벼쌀 수확이 시작됐다.

보성군은 전국 생산량의 57%를 차지하는 올벼쌀 최대 주산지이며, 특히 웅치면은 141농가가 올벼쌀을 경작하고 있는 올벼쌀 특화단지다. 이로 인해 올벼쌀 수확은 2010년도 지리적 표시 제71호로 등록되어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웅치 올벼쌀은 순수한 찰벼가 완숙되기 전 수확하여 전통방식으로 가마솥에서 수증기로 찜서 햇볕에 건조하고 현미로 도정한 쌀이다. 고소한 맛

과 함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고품질의 웰빙식품으로 영양효과,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 간식과 음식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성군은 예부터 추석 명절에는 반드시 햅쌀밥을 차례상에 올렸던 전통을 계승해 찰 쌀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웅치 올벼쌀 친환경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올벼쌀 축제, 대도시 홍보 관측행사를 끊임없이 갖고 올벼쌀 소비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올벼쌀 상품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 구례군, '폭염대비 안전 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구례군은 최근 구례 5일시장에서 안전보안관, 녹색어머니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 38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기, 국민행동요령'을 주제로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군 관계 공무원 등은 구례 5일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폭염, 태풍·호우시 행동요령이 담긴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관련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특히 구례군은 관내 관광지 3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1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섬진강변 수상레저업체 3개소에 대하여 안전장비 비치 여부 및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도·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연계기관 선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업별 인사관리방안 안내

**주요사업**